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0. 9. 27(월) 석 간		
배포일시	2010. 9. 24(금)	담당부서	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
담당과장	윤 석 호 (2150-5550)	담당자	류중재 사무관 (2150-5551)

제 목 : 복잡한 공공기관 경영평가, 쉽고 단순하게 개선 - 평가의 신뢰도와 수용성 제고 -

- ◇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의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키로 함
- 이를 위해 민관합동 개선TF를 구성('10.8월)하여 평가제도 개선 작업을 수행 중이며 연말에 최종 개선방향을 확정·발표할 계획
- * 평가제도개선 TF : 평가위원,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등 민간전문가, 기획재정부 등

1.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추진배경

- 2008년도부터 '공공기관 평가'와 함께 '기관장 평가'를 실시하여 책임경영 토대 마련 및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
- 반면, '기관장 평가'를 분리 시행함으로써 이중평가에 따른 기관부담 증가 및 兩 평가 결과간의 차이 발생으로 인해 평가제도 신뢰성에 대한 논란 제기
- 이에 따라, 그간의 경영평가 제도의 기초를 유지하면서, 평가지표 통합 등을 통해 기관의 평가부담을 줄여 평가제도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

2.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

- ① **[기관·기관장 평가체계 통합운영]** 이원화된 양 평가체계(평가지표)를 통합하여 유사지표를 두 번 평가하는 비효율을 제거하되,
 - 기관장이 그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보완
 - * 예: 평가지표는 통합하여 한번만 실시하고, 기관장 관련 지표만 별도 선정하여 기관장 평가결과 산정
 - 또한, 기관 평가단과 기관장 평가단을 **경영평가단으로 통합 운영**
 - * 현재 경영평가단 규모 : 기관 평가단 130명, 기관장 평가단 55명
- ② **[평가지표 단순화·체계화]** 유사·중복되는 평가지표를 축소하고, 성과지표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
 - 정부지침의 **단순이행관련지표** 등은 간소화하고, 공공기관의 고유 사업,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 **핵심성과지표의 비중을 확대**
- ③ **[맞춤형 평가제도로 개편]**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와 평가비중을 차별화
 - 공기업은 수익성,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나가고,
 - 준정부기관은 대국민 서비스, 정부정책 이행 충실도 등을 중점평가
- ④ **[경영평가단 운영 개선]** 경영평가단 통합 운영과 함께 평가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피평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수금지 등 **평가위원의 윤리규정을 강화**
 - * 평가과정상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를 발생시킨 평가위원은 평가과정 중에도 해촉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

3. 기대효과

- ① **[공공기관 평가부담 완화]** 이원화된 평가체계(평가지표) 통합 및 평가지표 단순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평가 수검부담을 완화
* 공공기관(550쪽 이내)·기관장(100쪽 이내) 실적보고서의 분량도 대폭 축소할 계획
- ② **[평가의 수용도 및 신뢰성 제고]** 공공기관·기관장 평가단 통합을 통해 兩 평가결과 차이 등 기존에 제기되었던 신뢰성 문제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평가결과 수용도를 제고
- ③ **[평가의 실효성 강화]** 경영효율화, 성과연봉제 등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·평가하는 등 공공기관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강화

4. 향후 추진 일정

- ① 민관합동 제도개선 TF 등을 구성, 제도개선(안)을 마련 : ~'10.10월
- ② 공공기관·평가단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수렴 : ~'10.11월
- ③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'11년도 평가편람 확정 : ~'10.12월
*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'11년도 평가(2012년)부터 적용

기획재정부 대변인